

PhD Thesis Abstract

K-POP 가창 가사의 한일·일한 번역 전략 연구

- 음절수, 압운, 의미를 중심으로 -

박세리(Seri Park)

한국외국어대학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그래미 어워드에 수상 후보로 연이어 이름을 올리면서 K-POP의 세계적인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K-POP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한국을 알리는 수단으로 문화 현상의 전파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파급력은 커지고 있다(이승연·장민호, 2019). 이러한 가운데, K-POP 가수들의 일본 진출 성공사례도 늘고 있다. K-POP 분야에서 일본은 중요한 시장으로 가수들의 일본 진출이 활발하여 번역곡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K-POP의 한국어-일본어 언어쌍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K-POP 가창 가사의 한일·일한 번역 양상을 분석하여 가창 가사가 가진 제약과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번역 전략을 도출하고, 번역 언어의 방향에 따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 (1) ST와 TT의 음절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TT의 가창성을 달성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 (2) ST의 압운을 TT에서 구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 (3) ST의 의미를 TT에서 구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 (4) 상기 음절수, 압운, 의미 번역 전략의 분석을 토대로 한일 번역곡과 일한 번역곡에서 나타나는 번역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일본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둔 K-POP 가수들이 해당 기간 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발매한 곡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곡수는 한일 번역곡 129곡과 일한 번역곡 61곡으로 총 190곡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로는 Franzon(2008)이 가창 가사 번역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운율적 합치’, ‘시적 합치’, ‘의미적 합치’를 기본틀로 삼았다. 분석의 범위로는 각각의 조건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텍스트 구현 요소 중, 운율적 합치에서는 ‘음절수’, 시적 합치에서는 ‘압운(rhyme)’, 의미적 합치에서는 ‘묘사’, 즉 가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음절수’에서는 ST와 TT의 음절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TT에서 어떠한 음절수 합치 전략을 구사했는지 살펴보았다. ‘압운’에서는 ST의 압운을 TT에서 구현하는 전략에 대해 각각의 섹션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의미’에서는 ST의 의미를 TT에서 구현하는 전략에 대해 각각의 행과 섹션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3. 분석 결과

첫째, ST와 TT의 음절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①음운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음절 합치 전략과 ②음악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음절 합치 전략을 구사하여 가창성을 달성하였다.

음운적 층위의 음절 합치 전략은 ‘TT 음절 축약’, ‘영어 음절·일본어 음절 혼용 가창(한일번역)’ 및 ‘영어 음절·한국어 음절 혼용 가창(일한번역)’이 있었고, TT축약은 ‘이중모음화’, ‘후행 동일 모음 탈락’, ‘중성 모음 $\text{ʉ}(\text{u})$ 탈락’, ‘모음의 무성화’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음악적 층위의 음절 합치 전략은 ‘원곡 리듬 변경’, ‘원곡 음표 유지’가 있었으며, 원곡 리듬 변경 방식에는 ‘음표 쪼개기’, ‘음표 합치기’, ‘음표 추가’, ‘음표 삭제’가 있었고, 원곡 음표 유지 방식은 원곡 음표에 맞추어 TT의 음절을 삽입하거나 TT의 음절을 늘어 부르는 전략이 있었다.

둘째, ST의 압운이 TT에서 구현되는 전략으로는 압운의 ‘유지’, ‘소실’, ‘추가’,

‘변경’이 나타났다. 또한 압운의 효과와도 관련이 있는 압운의 운량은 TT에서 증가하기도 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기도 하며,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압운 번역에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 음운의 재구조화를 통한 ‘가창 발음’이 나타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압운을 형성하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ST의 의미가 TT에서 번역되는 전략으로는 크게 ‘의미 유지’와 ‘의미 일탈’이 나타났다. ST의 의미를 TT에서 높은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 ‘의미 유지’는 ST의 의미 모두가 TT에 반영된 ‘전체 유지’와 ST의 일부 요소가 TT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 일탈’로 구분되었다. ‘부분 일탈’은 의미의 ‘추가’, ‘변경’, ‘생략’, ‘구체화’, ‘일반화’라는 세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TT가 새로운 텍스트로 대체된 ‘의미 일탈’은 전체의 의미가 새로 쓰여진 ‘전체 일탈’과 ST의 일부 표현만을 TT에서 참조한 ‘부분 유지’로 구분되었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 K-POP 가창 가사 번역곡의 범주 분류를 위해 시도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확인된 점은 K-POP 가창 가사 번역곡에서는 번역곡(ST의 의미를 TT가 80% 이상 유지한 곡), 각색곡(20%이상~80%미만 유지한 곡), 대체곡(의미 유지 비율이 20% 미만인 곡) 모두 혼재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한일 번역곡과 일한 번역곡에서 나타난 번역 전략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음절수’에서는 ‘원곡 리듬 변경’ 전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음절 혼용 가창’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압운’에서는 ‘유지 > 소실 > 추가 > 변경’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운량은 감소 > 증가 > 동일의 순서로 나타났다.

‘의미’에서는 ‘의미 유지(전체 유지+부분 일탈)’가 ‘의미 일탈(전체 일탈+부분 유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의미 보존의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 TT를 일정 부분 조정하는 ‘부분 일탈(추가+변경+생략+구체화+일반화)’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ST의 영어 가사가 번역되지 않고 TT에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노래에서 ST 의미의 TT 반영도가 20% 이상~80% 미만인 각색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일 번역곡과 일한 번역곡에서 나타난 번역 전략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음절수’에서는 한일 번역곡에서는 ‘TT 음절 축약’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일한 번역곡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압운’에서는 한일 번역곡에 비해 일한 번역곡에서 압운 ‘추가’ 비율이 두 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운량의 증가가 한일 번역곡보다 일한 번역곡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의미’에서는 한일 번역곡에서의 의미 일탈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한일 번역곡에서 한국어 가사를 TT에 그대로 보존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반해, 일한 번역곡에서 일본어 가사를 TT에 보존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한일 번역곡은 ‘생략’과 ‘일반화’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추가’와 ‘구체화’가 낮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일한 번역곡에서는 ‘추가’가 높은 비율로, ‘생략’과 ‘일반화’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일 번역곡이 일한 번역곡에 비해 ‘대체곡’의 비중이 높고, 일한 번역곡은 한일 번역곡에 비해 ‘번역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K-POP 가창 가사의 한일·일한 번역에서는 음절수 불합치 시, 가창성 달성을 위해 원곡 리듬 변경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오페라, 뮤지컬과 같은 장르와 달리 K-POP 장르에서 가창 가사의 최우선 목표는 가사 전달이 아니며, 원곡의 리듬에 대해서도 비교적 유연하게 접근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압운 번역에서는 ST의 압운을 TT에서도 구현하려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지만, 운량은 감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압운은 유지하되 운량에 대한 고려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의미 번역에서는 ST의 의미를 TT에서도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의미 번역 전략의 범주 구분을 시도한 바, 한일·일한 번역에서 ‘각색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페라, 뮤지컬과 같은 장르의 가창 가사 번역과 다소 다른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첫째, K-POP 가창 가사를 음절수, 압운, 의미 번역의 양상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 K-POP 가창 가사의 번역 양상을 의미 번역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측면, 즉 음절수와 압운 측면에서도 조망해 볼 수 있었다는 점, 셋째, 오페라, 뮤지컬 가창 가사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K-POP 가창 가사의 번역에서 장르적 특성에 기인한 차이점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넷째,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의미적 충실도에 따른 번역, 각색, 대체라는 범주 구분에 조작적 정의를 내려 한일 번역곡과 일한 번역곡의 번역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음절수, 압운, 의미를 연계하여 각각의 요소 간의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 번역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의 고려, 가창 가사 번역 전략에 대한 팬덤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참고문헌

이승연·장민호(2019). 「K-POP 음악의 글로벌 성공 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4): 1-15.

Franzon, J.(2008). Choices in song translation. *The Translator* 14(2): 373-399.

본 초록은 ‘박세리. (2022). K-POP 가창 가사의 한일·일한 번역 전략 연구-음절 수, 압운, 의미를 중심으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Author's email address

parkseri77@hotmail.com

About the author

Seri Park is a lecturer at GSIT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song translation and education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